



지역 소식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서울 남 스테이크, 가족 발견의 날



지 난해 마지막 안식일인 12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가족 발견의 날(구(舊) 가족 역사 세미나) 행사가 있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성도들은 가족과 조상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영등포 와드에 가져왔다.

전시회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회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사진과 사진 설명, 회고록, 족보 자료, 역사적 유품 등을 전시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와 전시회에 참여했다.

전시회 한쪽에 설치된 부스에서, 참석자들은 FamilySearch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4대 가계도를 완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배웠다.

청소년은 LDS 계정 개설과 관리를 돕는 등 다른 회원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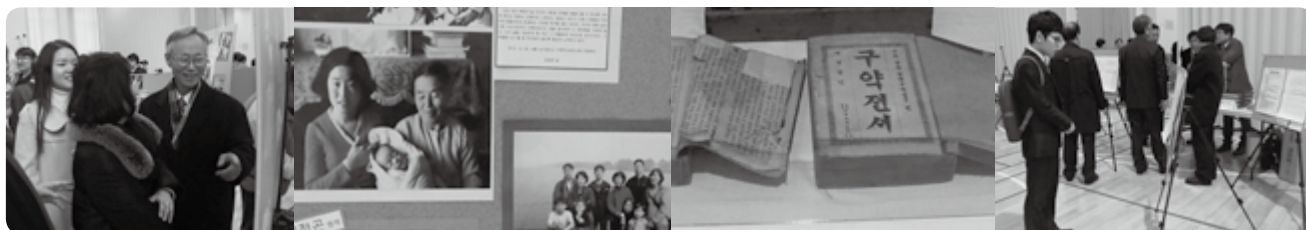
전시회를 마무리하며 예배실에서 간증 모임이 열렸다. 미리 지명받은 회원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사들은 각자 가족과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사 중 한 명인 초등학교 어린이 김민서 자매는 직접 쓴 편지를 모두 앞에서 읽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 김 자매가 쓴 것으로,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여전히] 할아버지가 좋아요. 잘 클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회원들이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간증 모임을

통해 다른 이들의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각자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조상들을 회상하며 행복한 추억에 잠겼다. 추억을 서로 나누면서 다른 이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봉천 와드의 안덕현 형제는 참석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지금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도 그때그때 잘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가족 발견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데, 이 행사는 좋은 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



나주 지부: 주님의 집, 회원의 집, 그리고 나의 집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야곱서 6:7]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회소를 사용합시다.” —고든 비 힝클리, “참된 신앙”,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7쪽

“저는 중학생 시절 목포 와드에서 개종했습니다. 당시 감독은 조용태 형제님이셨는데 신체의 절반 가량이 마비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하룻밤에 교회에 들러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 보니 문이 모두 열려 있고 불도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가 보니, 감독님께서 수도꼭지와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수도관이 터져 수도꼭지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아 보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쏟아지는 물로 옷이 다 젖었는데도, 불편한 몸으로 물과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어린 중학생이었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희생으로 이끌고,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각자 능력과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주 지부 회장단이자 지부 건물

대표인 안성현 형제의 말이다. 그는 집회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부 건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주 지부는 건물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2층의 높은 건물, 넓은 주차장, 풋살 경기를 할 만한 잔디 구장 등 50여 명의 지부 회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하지만 나주 지부는 늘 신축 건물처럼 깨끗하고 아름답다.

나주 지부 회원들에게 교회 집회소는 주님의 집이자 자신의 집이다. 잡초가 많이 나는 따뜻한 계절에는 퇴근 후 잡초를 뽑으러 지부에 들른다. 각 가족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며, 서툴더라도 어린 자녀를 참여시키고 가르친다. 나주 지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청소 실력은 서툴더라도 지부에 대한 애정과 봉사가 몸에 배어 있다. 가족이나 회원별로 담당 구역을 정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부 회장단이 도와주고 격려한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쳐다볼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안성현 형제의 얼굴이 행복감에 넘친다.

서영주 지부 회장의 말을 통해, 나주 지부 건물이 잘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매일 교회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로 다들 바쁘지만, 가능한 한 자주 모여, 교회에 온기가 계속되고 우정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재능 나눔: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의 특별한 봉사 활동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 55명은 동의성 단원 병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방문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능 나눔 공연을 펼쳤다.

본래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매년 와드별 혹은 스테이크 단위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해왔다. 올해 문화제를 계획하던 중, 청소년 담당 고등평의원 조동희 형제는 좀 더 의미 있는 문화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조 형제의 도움과 주선으로,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단원 병원에서 재능을 통해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와드별로 한 가지씩 공연 종목을 정하고 겨울 방학 동안 자주 모여 연습했다. 매년 해 오던 문화제였지만,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공연이었고, 봉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와드 청소년 회장단은 이런 청소년들을 곁에서 격려하며 이끌어주었다.

공연 당일, 환자와 가족, 의료진 앞에서 해금 연주, 인형극, 댄스 스포츠, 단체 댄스, 쿼트, 핸드벨, 7080 메들리(중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전문가의 공연이 아니었고 청소년들은 실수하기도 했지만, 관객과 병원 관계자들은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연을 관람한 한 모녀는 “재미있었다”며 함께 웃었고, 그 어머니는 “아이가 오랜만에 즐겁고 신나했다”고 전했다.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재능 나눔 공연은 청소년 담당 고등평의원 조동희 형제의 마술쇼로 마무리되었다.

단체로 댄스를 추었던 금천2 와드의 박다진 자매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단합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핸드벨 연주를 준비했던 변채린 자매는 “환자분들, 특히 아픈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봉사의 기쁨을 표현했다.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봉사의 기쁨과 성취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얻었다. 이번 재능 나눔 공연은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화합과 저활동 청소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



모든 한인 성도 여러분께

8월 2일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한국을 헌납하신 날이자, 고(故) 김호직 형제님이 초대 한국 지방부 회장에 성별되며 한국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해 4월 16일은 김호직 형제님의 탄생 110주년이 됨과 동시에, 12월 15일은 서울 성전 헌납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역사 위원회에서는 2015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 기념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교회 헌납 60주년’ 기념 스테이크 활동에 대한 지원

- 스테이크, 지방부, 와드 및 지부의 역사를 조사하여 역사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60주년 활동 전시를 위한 배너 제작을 원하실 경우 역사 위원회에서 도와드립니다.

(기한: 배너 제작 최소한 2개월 전까지)

* 수집할 내용: 각종 사진, 스테이크 · 지방부 태동 지역, 최초의 모임 및 침례 기록, 와드 지부 및 스테이크, 지방부 조직 및 변경, 건물 착공 및 헌납, 지부 회장단, 감독단, 스테이크 · 지방부 회장단 변경사항, 와드 및 지부 약사, 기타 활동, 초기 성도들의 간증 기록, 회원 간증 기록은 스테이크 내외 구분 없이 수집

- 스테이크 및 지방부 역사 전문가를 지명하여 역사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부름을 주기 어려운 경우 회장단의 일원을 지명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가능한 한 빨리)
- 스테이크 및 지방부 내 그래픽 디자인 및 편집에 재능이 있는 회원을 추천해 주십시오.(기한: 가능한 한 빨리)

2. ‘한국 교회 60년사’ 발간에 스테이크 참여 독려

- ‘한국 교회 60년사’ 책에 실릴 ‘스테이크 · 지방부 역사’를 요약하여 약 30쪽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역사 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 7월 말까지)

3. ‘교회 기록물 보존 센터’ 활용 및 안내: 서울 스테이크 구 홍제 집회소 건물이 한국 교회 기록물 보존 센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교회 역사 기록물의 수집, 분류, 보관, 디지털 변환 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선교부 · 스테이크 · 지방부 · 와드 · 지부 서기실 등에 보관된 오래된 기록, 서류, 사진, 책자 등을 관리 본부로 택배 발송합니다.(기한: 수시)
- 교회 역사에 도움이 되는 오래된 각종 기록물, 사진, 유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 역사 위원회에 알립니다.(기한: 수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로마서 15:4~6)

우리 모두가 개인과 교회의 역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교훈을 얻고,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지니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역사 위원회 올림

인터뷰: 북아시아 지역 역사 고문으로 부름받은 서희철 형제

Q. 새로운 부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북아시아 지역 내, 즉, 한국, 일본, 괌, 마이크로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 공유하는 일을 합니다. 개인 역사의 구술 녹음과 자료의 디지털 변환 작업이 포함되며, 자료의 의의와 교훈을 나누는 일도 합니다. 각 단위 조직에 연례 역사 보고서 작성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훈련도 담당합니다.

교회 역사 전시회와 선교 역사 전시회 등 역사와 관련된 영적 모임 등의 활동들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스테이크별로 개최되는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Q.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한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마서 37장 8절에는, “이러한 것이 백성의 기억을 넓혀 주었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부름을 받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부, 역사 도서관, 역사 자료 보관소 등을 방문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부 회장 시절 함께 봉사했던 귀환 선교사와 가족들 100여 명이 모여서 우정 모임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선교 사업 당시 기록한 것을 가져왔고, 함께 참석한 가족에게 자신의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긍지를 심어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도 성공과 기적을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둘째, 저는 한 간증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기록한 것으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 기록을 떠올립니다. 이 기록을 읽은 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리아호나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각국의 개척자들: 한국의 교회—혼돈과 어려움의 시기에 비친 복음의 빛”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 초창기의 이 훌륭한 역사, 신앙의 선조 이야기, 간증,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Q.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A. 교회 본부 자료 보관소에서 김호직 형제님의 유품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경 앞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몸과 정성, 한국 전도를 위하여 바치겠나이다.(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956년 3월 4일. 김호직)”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역사 관련 역원들과 하나가 되어 이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힘쓰겠습니다. ■



침례의 물가에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나는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에 다녔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아팠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최진영 자매

나는 10여 년간 기독교의 한 종파에 몸담았다. 그곳은 물질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순수해 보였고 점차 교세도 확장되었지만, 나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점이 의아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행복감이나 순결함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를 만났고 영어를 배웠다. 1년 정도 영어 회화반에 참석했는데, 어느 날 교회 탁자에 놓인 물몬경을 발견했다. “저게 뭔가요?”라고 질문하자 선교사님들은 조심스럽게 물몬경을 건네주셨다. 집에 돌아와 물몬경을 읽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게 전해졌다. 물몬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었으며, 그 책을 읽으면서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의 권유에 따라, 물몬경을 읽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물몬경이 ‘참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평화와 위로가 찾아왔다. 2014년 6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침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 온 것이 마치 ‘복통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아팠는데, 교회에 오고 나니 ‘언제 아팠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삶에서 시련을 마주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분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물몬경은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며 나의 가치와 신념의 중심이다. ■



자립 지원 센터에서는 자립의 원리의 토대 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기사는 자립 지원 센터에서 제공한다.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 진로 박람회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청소년기는 각자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전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메리 앤 쿡 자매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덕적 선택의지와 지상에서 배움을 쌓을 기회를 받았으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학문을 구하라: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12년 4월 연차 대회)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 진로 박람회가 녹번 와드에서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 회장단이 주최한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일찍 다양한 직업 탐색과 진로 상담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선교 사업을 다녀온 이후, 진로를 명확하게 설계하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자립 지원 서비스의 지원을 받았다.

개회와 안내 후 2시간 동안 녹번 와드 공과 방과 활동실에서 총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래 설명된 각 프로그램 중, 청소년과 기타 참석자들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 부스 활동: 15개 직업군에 대한 부스를 마련하여 각 직종에서 활동 중인 성도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함. 부스 활동과 더불어 UN 선정 유망 직업 54가지를 퀴즈 형식을 통해 소개함.
- 관련 동영상 감상: 진로 탐색에 관련된 동영상을 방영함.
- 심층 상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수준을 나누고, 문과 및 예체능, 이과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진로 상담을 제공함. 학생 한 명 당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 세 명이 배정되어

심층 상담이 이루어짐. 청소년용 직업 흥미 검사(고용노동부 개발)를 시행함

- 진로 설계: 향후 20년까지의 진로를 설계해 봄
특히 큰 관심이 쏠렸던 곳은 직업군별 부스였다. 패션, 섬유, 건축, 건설, 금융, 무역, 소프트웨어, 전기, 기계, 법 관련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의 부스가 설치되었다. 다양한 직업군의 후기 성도 성인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청소년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녹번 와드의 한 청년은, “직업별 부스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웠고, 수업이나 야근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알게 되어 좋았어요.”라고 전했다.

이날 봉사해 준 여러 후기 성도 직업인 가운데, 의류 분야의 부스를 맡았던 녹번 와드 정예리 자매는 다음과 같이 모임 후기를 전했다. “청소년들이 내가 맡은 의류 분야에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었느냐며 신기해했어요. 더 알고 싶어 하고 집에 가서 더 찾아보겠다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함께 온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체 참석자는 1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청소년은 70여 명이었다. ■



나는 마르다가 되겠다

“.....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누가복음 10:39~40)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김논산 자매

9년 전, 나는 스테이크 청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당시 생후 15개월인 아들과 함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처음엔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며 부름을 버겁게 느꼈다.



‘청녀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어 주며 표준을 알려 주자, 경전을 읽게 하자, 매일 기도하게 하자,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 따라서 할 거야.’

나는 지침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리아호나에서 청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고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모든 게 스트레스였다. 표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청녀들을 판단했다.

‘청녀들이 치마를 너무 짧게 입어. 왜 화장을 하는 걸까? 모임에는 왜 늦지?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는 걸까?’

나는 청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때, 부름을 받으며 수첩에 적어 두었던 개인적인 다짐이 생각났다.

“주님의 발치에서 영과 사랑을 느끼던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뒤에서 분주히 준비하던 마르다가 있었다. 청녀 회장의 책임에서 마르다가 되자. 청녀들이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영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잠시 잊고 있었다. 청녀들이 주님의 영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즐겁고 행복하게 청녀들을 바라보며 봉사할 수 있었고 청녀 회장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부름이 되었다.

청녀 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라기 보다, 청녀 회장으로서 청녀들의 뒤에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늘 함께하는 것이다. 청녀들이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할 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청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9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작년 11월, 스테이크 청녀 회장의 부름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들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청녀를 졸업하고 청녀이 된 한 자매는 이렇게 적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 소망은 나중에 청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내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 청녀의 어머니는 내가 청녀였을 때 나의 청녀 회장이었다. 청녀 시절, 청녀 회장단의 사랑으로 내가 발전했고, 이제 성장해서 그분들의 딸들을 가르쳤다. 언젠가는 그 청녀들이 자라 내 자녀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라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셔서, 약점 많고 부족한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

아래 사진 왼쪽부터: 전 본부 청녀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와 김논산 자매(2012)



봉사 선교사

봉사 중인 부부 선교사 4쌍



문명규 장로, 김복선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대전 선교부



박기동 장로, 김정순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시절부(대전)



정덕진 장로, 정영순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대전 선교부



조양호 장로, 이덕경 자매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자립 지원 서비스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4명/장로 7명



김근수 장로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남 선교부



김태양 장로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선교부



박다은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2 와드
부산 선교부



석채영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뉴질랜드 해밀튼
선교부



오의찬 장로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부산 선교부



이승우 장로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대전 선교부



정재운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주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조성민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부산 선교부



허신행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대전 선교부



이도환 장로, 이재숙 자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올림픽 와드
서울 성전

지역 소식 기사 공모전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기사를 공모합니다. 선발된 기사는 지역 소식에 게재되며 부상(副賞)이 주어집니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자는 지역 소식 자유 기고가로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 기사 주제: 지역 소식 게재에 적합한 한국 후기 성도 소식, 개인, 가족, 정원회 및 단위 조직의 선행과 진솔한 간증 등
2. 분량 및 형식: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수기(手記) 작성 배제), 글자 크기 10pt로 약 0.5~2쪽 분량
3. 자유 기고가 자격: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지자 또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
4. 우편 및 이메일로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5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이메일: kah_liahona@hanmail.net
5.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카카오톡 아이디(ID): 리아호나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감독: 장승태 형제(전임: 김영철 형제)